

불족석

이 돌에는 석가모니의 발자국을 나타내는 선이 새겨져 있습니다. 이 발자국은 초기 불교에서 보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. 오늘날에는 불상이나 불화를 향해 절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, 부처의 입멸 후 수백 년 동안은 그러한 형태의 신앙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. 당시의 불교는 명상이나 일상생활 속의 계율과 같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학문이었기 때문에 신성한 그의 존재를 형상으로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대신, 석가모니가 이 땅에 살았음을 상기시키기 위해 석가모니의 발자국을 돌에 새겨 넣었습니다. 야쿠시지 절의 불족석은 거기에 새겨진 비문에 따르면 장안(현재의 시안)의 사찰에 있던 불족석을 본뜬 것으로, 그 장안의 불족석 또한 석가모니가 생애의 대부분을 보낸 장소로 여겨지는 고대 인도의 마가다 왕국에 모셔져 있던 것을 모사한 것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불족석의 원형이 된 도면을 작성해 나라로 가져온 이는 사절단의 일원으로 당나라에 건너간 기부미노 혼지쓰(생물년 미상)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야쿠시지 절을 창건한 덴무 천황(?~686)의 손자인 혼야노 마히토치누(693~770)는 그의 처인 만타노 고리노오(생물년 미상)가 세상을 떠나자, 공양을 위해 이 불족석을 건립했습니다. 덴표쇼호 5년(753년)이라는 연호가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, 일본에서 볼 수 있는 약 300 개의 불족석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.

비문에 따르면 이 발자국은 석가모니가 열반에 들어설 때 발을 디뎠던 장소라고 합니다. 석가모니와 관련된 문양이나 상서로운 징조에 관한 것이 새겨져 있어, 이 불족석을 보는 것만으로도 죄를 씻어내는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